

쌍용정유의 여의도 시대 개막



권 태 엽

〈쌍용정유 업무부 대리〉

한 해를 돌아보는 모
 통이에 서면 「多事
 多難」 「萬感交又」 등
 일상적인 표현을 빌리지 않
 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숙연
 해지기 마련이다.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사
 고가 많았던 94년 甲戌年
 에 이어 95년 乙亥年에도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엄청
 난 대형참사로 한해를 보내
 는 우리의 마음은 착잡하기
 만 하다.

올해 국내석유업계의 최
 대이슈는 석유산업 자유화
 문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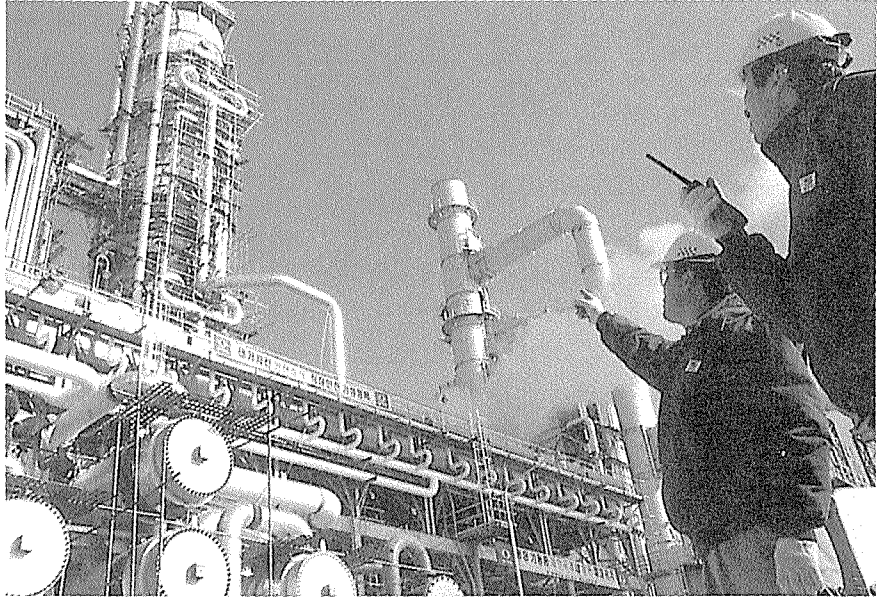
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석유산업 자유화 시행방안의 후속조치로 몇차례 논
 란끝에 9월 유가자유화, 석유정제업·판매업등록제
 및 대외개방을 골자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입
 법예고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 회사에 있어서 올해는
 세계 유수의 석유회사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진
 한해였다. 생산규모의 확대는 물론 경영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해외시장의 확대 및 소비자 중심의 품질고
 급화 노력등으로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대비하여 경
 쟁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시설고도화 및 정제시설 확충

우리 회사의 간 큰(?) 남자들이 온산 회남단지에서
 마침내 일을 냈다.

국내 석유수요구조의 경질화·저유황화 추세에 따
 라 생산 전제품을 경질화 및 저유황화할 수 있는 차
 세대형 정유공장으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우리회사가



▲제3 원유정제시설 가동을 눈앞에 두고 시운전에 열심인 쌍용정유인

역점을 두어 건설해왔던 B-C크래킹센터 프로젝트중
 1단계로 올해 완공한 일산 30천배럴의 수소첨가 분
 해시설과 일산 25천배럴의 重質油탈황시설이 그것이
 다. 이시설은 첨단공정의 채택, 투자비의 절감, 자기자
 본 조달비율의 획기적 증대로 높은 경제성을 확보하
 여 대폭적인 부가가치 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정제시설능력 확충을 위해 약 460억원을 투
 자한 일산 200천배럴 규모의 제3원유정제시설도 완
 공됨으로써 대규모 정유회사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설고도화 및 정제시설 확충으로 우리 회
 사는 앞으로 중국등 인접국가의 수급상황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년 2단계로 일산 33천배럴의 접촉분해시설이 완
 공되면 이 大役事로 인한 하숙집생활, 휴가반납등으
 로 간 큰 남자로 찍힌(?) 건설관계자들의 명예는 어
 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신제품개발을 통한 품질향상 주도

창립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품질 고급화를 캐치 프레이즈로 내걸어 온 우리 회사는 올해 품질향상 측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그야말로 「상한가」를 쳤다.

국내석유제품 최초로 환경마크를 획득한 「청정등유」를 신제품 발표회('94. 12)를 통해 선보인 바 있는 우리 회사는 올해 들어 최고급 자동차용 엔진오일 「수퍼드래곤」(5월), 그리고 제5세대 휘발유 「수퍼크린」(10월)을 속속 시장에 내놓아 품질면에서 「수퍼」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특히 제5세대 휘발유 「수퍼크린」은 지금까지의 제4세대 첨가제를 사용한 휘발유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엔진요구 옥탄가 감소에 따른 실질적인 옥탄가 성능 향상이라는 새로운 기능과 함께 자동차 공해물질 중 유독성 물질인 녹스(Nox)의 배출량을 약 20% 감소시키는 획기적인 휘발유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경영체제의 구축을 통한 환경친화적 기업이미지 확립

나날이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환경에 대한 우리 회사의 노력은 올해에도 계속되었으며, 그 결실 또한 알차다. 96년초 환경경영체제규격(ISO-14001)시행에 대비하여 국내기업의 환경경영체제 구축을 유도하고 산업계의 사전경험과 환경경영심사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국가대책으로 공업진흥청이 추진중인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우리 회사는 참여대상기업으로 확정된 후 공장지도 및 인증심사를 성공적으로 끝내었으며, 이에 따라 연말에는 시범인증 평가증서를 발급받을 예정이다.

또한 세계 환경의 날에 우리회사가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은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증명해 준 사례이기도 하다.

이는 우리 회사가 공급하고 있는 청정등유가 수소 첨가 탈황공정으로 유황성분을 등유제품규격의 1/80

인 10ppm수준으로 감축, 정유업계 최초로 등유제품에 대해 환경마크를 획득하는 등의 환경보호 노력으로 대기오염감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공포의(?) 적색 유조차량을 꽃과 나비를 통해 신선함과 생동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도색하여 청결한 도시미관을 창출한 것도 특기할만한 일이었다.

문화행사 개최 「젊음과 꿈이 있는 사랑의 음악여행」

신뢰·혁신·인화의 기업이념 아래 일찍이 기업문화를 정립하여

▼쌍용정유 여의도 새사옥



고객만족경영을 추구해온 우리 회사는 올해 다채로운 서비스와 문화행사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업으로 이미지를 확고히 하였다.

고객사은행사의 일환으로 5~9월중 서울, 대구, 창원에서 3차례 개최한 전국순회음악회(젊음과 꿈이 있는 사랑의 음악여행)는 국내 최대규모의 야외 클래식 연주회로서 문화예술의 현장 체험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도시의 청소년층에게 수준높은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며, 기업과 예술계 사이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보여주는 등 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음악회였다는 점에서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신용사회의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고객의 편의제고를 위해 상품권을 발행하는 한편, 하절기 휴가철에는 당사 주유소안내 전국지도, 부채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경영을 착실히 다진 한해이기도 하였다.

교육훈련의 새로운 이정표 「새시대 새지식교육」

교육에 대한 투자정도는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가늠한다.

우리회사는 WTO출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지식·정보·기술 및 관행의 질적변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선진국형 석유회사」를 구현하기 위해 「새시대 새지식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올해 처음 실시하였다.

부·과장 및 현장 고참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은 합숙생활 및 다양한 과목등 파격적인 프로그램으로써 성공적인 교육훈련으로 자리매김 받았다.

아듀, 충무로·저동!

6월 충무로 회색빌딩을 뒤로하고 최첨단 인텔리젠

트 빌딩인 여의도 사옥에 입주하면서 쌍용정유의 여의도시대가 개막되었다.

여의도사옥에 입주하면서 사무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여의도사옥은 완벽한 정보통신 시스템과 빌딩자동화 시스템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첨단 인텔리젠트빌딩으로서 사원들의 업무효율을 최대한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충무로·저동거리는 쌍용정유인들에게 잊혀질 수 없는 곳이다.

파를 걸들인 골뱅이와 맥주의 추억, 명보·중앙극장등 명화의 전당(?)들, 없는 것이 없는 먹거리 문화...

이렇듯 충무로·저동거리에 대한 아쉬움은 올해를 보내는 지금도 우리 쌍용정유인들에게 곳곳에 남아 있다.

쌍용정유의 95년은 각종 증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품질향상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 온 한해였다.

쌍용정유인들의 95년을 보내는 감회도 이러한 뿌듯한 성취감으로 충만하다.

다가오는 96년 丙子年을 대비하는 각오 또한 새롭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유수의 경쟁력 있는 정유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석유가격자유화 및 석유산업자유화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가 절박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항상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의 계기로 삼아온 쌍용정유인들에게 있어 96년 또한 새로운 시작일 뿐이며, 환태평양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정유회사로의 위상을 굳건히 해나가는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